

주소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928005631>

실 대신 빛으로 피부 봉합 광의약 기술 개발

포스텍 한세광 교수팀 연구 성과



수술로 잘린 피부를 실이 아닌 빛으로 봉합하는 광의약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포스텍(포항공대)은 신소재공학과 한세광(사진) 교수팀이 근적외선을 쬐어 사고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수술 뒤 잘린 피부를 효과적으로 접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나노 분야 권위지인 'ACS 나노'지에 실렸다.

녹색 파장의 빛을 흡수해 콜라겐이 잘 붙도록 유도하는 염료제 로즈벵갈을 피부에 잘 투과되는 생체고분자 히알루론산에 붙인 다음 상향변환 나노입자를 섞은 복합체를 피부에 바르고 근적외

선을 짜면 피부 접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동물실험으로 확인했다.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2017-09-29 03:00:00

세계일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COPYRIGHT © 세계일보 All rights reserved.